

# 시민 중심 구석구석 체감행정 '굿'

나주시 어르신 발관리·100원 택시·농업인월급제 등 호응



어르신 발관리



100원 택시

나주시가 민선 6기들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시민중심 체감행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어르신 발관리'와 '100원 택시', '농업인 월급제', '노인건강 사업', '초중생 해외연수 확대'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전국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강인규 나주시장이 올해 들어 연초부터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면서 각 부서별로 진행중인 '체감행정' 사업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나주시의 '100원 택시' 정책은 올해 대상마을을 대폭 확대해 농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특히 대상 마을 선정기준이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 1.3km 이상에서 500m로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 23개 마을 911명이었던 이용대상자들이 135개 마을 6800여명으로 늘었다.

또 100원 택시 이용권도 '인구수'가 아닌 '가구수'를 기준으로 4매씩 배부해 마을별 편차도 줄었다.

이와 함께 나주시보건소에서 양성한 발관리 사들이 읍·면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진행중인 발관리 서비스도 어르신들로부터 폭발적인 호

## 초중생 해외연수 적극 확대

### 하반기 노인 목욕비 지원 등

### 타지역 지자체 롤모델로 부상

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한 발관리사 25명은 특별로 발마사지 서비스에 나서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발관리사업은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노폐물도 제거해 피로나 스트레스, 당뇨, 요통 등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거두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농업인 월급제 역시 올해부터 전체 농가로 대상을 늘리고 월급 지급시기를 앞당기면서 지급한도를 50%나 높이기로 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62개 농가였던 월급제 대상 농가를 올해부터는 농가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도 4월에서 3월로 한달 앞당기며, 월급상한선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영농철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작

되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농가들이 월 지급한 도액을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행정과 농업이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이 농가에 월급을 선 지급하고, 이자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초학생 해외연수도 '소수중심의 학력신장'위주에서 '다수학생의 보편적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은 연수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노인건강보조 지원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여가기 위해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올 상반기 중 제정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하고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로 3매씩 총 12매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집까지 귀가시켜 주는 안심귀가 서비스도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kwangju.co.kr】

## 공산·마한농협, 농림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선정

### 시·도·농협 공조...반납할 뻔한 65억 살려냈다

나주 공산농협과 마한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각각 40억원과 25억원 등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산농협은 지난해 10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의 농축순환지원센터가 최종 무산되면서 사업비 40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으나 기존의 공동육묘장, 벼 건조저장시설 외에 보관시설과 도정공장 등 2개사업을 추가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끝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나주시와 공산농협, 전남도가 연계해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한 끝에 이뤄낸 것이라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 노력의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올해에는 공동육묘장 등 전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을 189ha에서 329ha로 140ha 확대해 공산면의 수도작 및 특수미, 잡곡생산 농가의 영농편리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한농협 미곡처리장.

마한농협도 친환경벼 건조저장시설, 벼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장고, 지게차 등의 사업에 자기부담을 포함해 모두 25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 인증면적이 166.6ha에서 233.4ha로 66.8ha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2만가마 정도의 산물수매량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왕곡, 반남면 친환경수도작 농가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친환경학교 급식 공급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나주학사 입사생 다음달 4일까지 40명 모집

나주시는 27일 "나주출신 중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나주학사'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나주학사는 2명씩 20실로 총 40명의 입사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입생 12명과 재학생 28명 등 총 4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혁신도시이전 기간 직원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에게는 가점이 적용되며, 학교성적,생활 정도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입사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서울 내발산동 나주학사.

나주시 교육체육과 인재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 나주학사는 체력단련실, 도서관, 컴퓨터실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월 이용요금은 12만원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 나주시, 강소농 만들기...농업인 1520명 실용교육

나주시는 "지난 26일 금천면 배재배기술 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20회에 걸쳐 152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중 FTA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2015년 문제됐던 현장예로기술 해결을 중심 교육으로 농업인의 실천의지와 능력배양 강화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과목은 수도작, 채소, 과수, 농촌자원분야 등 4분야로 ▲농작업 안전관리 수칙 및 기계임작업

료 ▲로컬푸드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안내 ▲당면 현안과제 해결 위주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 당일 해당장소에 등록하면 수강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읍면동 사무소나 농촌진흥청과 지도행정팀(061-339-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핵심기술 등 실용적인 교육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초중생 해외연수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